

NH, 보수색채 벗고 글로벌 진출... 부품·소재 투자펀드도

배영훈 NH아문디 대표이사 간담회
 “임기내 업계 5위 운용사 만들 것
 중장기적으로 美·베트남 등 진출”

배영훈 NH-Amundi자산운용(NH아문디) 대표이사가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NH아문디를 업계 5위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는 14일 출시한 ‘필승 코리아’ 펀드를 통해 일본 수출보복과 관련, 국내 소재·부품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NH아문디, 글로벌 투자 앞장”

배 대표는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업계 5위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NH아문디의 수탁고는 40조6000억원인데 이를 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글로벌운용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미 지난해 NH아문디는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운용본부를 설립한 바 있다.

배 대표는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는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고, 수익률 내기도 힘들다”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베트남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영훈 NH-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회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업지 기자

남 등 동남아 국가의 자산운용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펀드운용 등에 의존했던 소극적인 투자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상장지수펀드(ETF), 지난해 8월에 시작한 햇지펀드, 올 5월에 시작한 연금관련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인력 확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의 시너지 역시 NH아문디의 강점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 운용사 특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협금융과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NH아문디의 지분은 NH농협금융지주가 70%, 프랑스 아문디 자산운용이 30%를 갖고 있다.

특히 1985년 농협중앙회 입사를 시작으로 전통 농협만의 길을 걷고 있는 배 대표는 “NH아문디는 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농협인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금투협·농협그룹 힘모아

이날 간담회는 오는 14일 출시할 NH아문디의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의 출시를 알리는 자리기도 했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부품·소재·장비 관

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성장성을 갖춘 국내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배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주가가 부양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도 투자하고, 이미 수혜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우려에 대해서 배 대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대기업에도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공익적 성격을 더한 특징이다. 배 대표 역시 해당 펀드를 ‘공익형 상품’으로 규정했다. 의미있는 펀드인 만큼 농협그룹과 금융투자협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펀드의 운용보수를 낮게 설정했다. 일반적인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는 80bp(1bp=0.01%) 수준인데 ‘필승코리아 펀드’는 50bp 수준으로 보수를 정했다. 보다 많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다.

또한 운용보수의 절반은 부품, 소재, 장비를 연구하는 부서나 대학에 기금으

로 출연할 계획이다. 펀드에 400억원이 모인다면 1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협그룹은 상당한 씨딩(seeding) 자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배 대표는 “보통 펀드 출범에는 100억원 정도의 시딩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수준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고객이나 법인 고객에게 판매를 하면 상당한 자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 역시 해당 펀드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서비스 본부장은 “이 상품이 투자 타겟을 하고 있는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등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 성장을 급격하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이라면서 “성장과 관련된 과실을 향유하기 위해 펀드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른 쪽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대내외 악재에도... 증권사 사상최대 실적에 ‘好好’

증권사 실적발표 스타트

미래에셋대우 순이익 2194억, 40% ↑
NH투자증권 1073억, IB부문 실적기대
메리츠증권 순이익 1459억원 기록

국내 증시가 한없이 추락하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는 와중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놓는 등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 하락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평가이익이 반영됐고 IB(투자은행), PI(자기자본투자)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수익 달성을 가능케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메리츠증

금증권 등이 올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냈다.

국내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는 연결 기준으로 219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9.6%가 늘었다. 분기 순이익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6분기 만이다. IB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비즈니스 전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수수료와 기업여신수익을 더한 수익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1000억원을 상회했다.

해외법인은 1분기에 이어 세전 순이익이 400억원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에 전년도 전체 실적을 뛰어 넘었다. 분기자기자본이익률(ROE·연환산)도 10.19%를 기록하며 수익구조의 안정화 흐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의 잠정실적은 1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파생상품 평가방식 변경, 자산 리밸런싱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고 증시 부진으로 인한 헤지 펀드 및 PI부문에서 주식성 자산 평가손실도 적용,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결과를 내냈다.

하지만 아쉬운 운용사업 부문을 대체할 만큼 IB부문에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는 평가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운용 부문만 제외하면 양호한 실적으로 초대형IB로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실제 ECM, DC M 등 전통IB부문에서 실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리스크 대비 낮은 수익성의 자산을 축소하면서 대체투자부문에서의 추가 인수여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증권은 연결기준 145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작년 2분기보다 33.8%가 증가했다. 사상 최대 분기실적인 1분기 순이익을 넘어섰다.

메리츠증권증권 또한 IB부문 수익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메리츠증권증권은 IB딜 중에서도 빚(Debt) 투자에 집중하면서 운영업수익 내 이자손익의 비중이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며 올해도 사상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투자는 903억원, KB증권 816억원, 신한금융투자 719억원의 견조한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으며 한국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실적은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운용’ 교육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채권운용’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 23일부터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채권영업, 채권운용,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부서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채권운용’ 과정은 국내·외 채권시장 동향, 운용전략, 리스크 관리 등 채권 관련 상품운용 및 투자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교육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2일간 49시간이다. /손업지 기자



유안타증권
 ‘유쾌한 TMI 시즌2’ 오픈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를 주제로 배우 향인혜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인 ‘유쾌한 TMI 시즌2, 해외주식-미국편’을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쾌한 TMI’는 유안타증권이 시즌제로 제작해 유튜브(YouTube)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하는 투자 콘텐츠로서 국내주식을 다룬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는 ‘해외주식-미국편’을 주제로 총 5화로 제공한다. /손업지 기자

NH투자증권 ‘투자여행 KIT’ 선물 이벤트

NH투자증권은 고객이 투자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 ‘투자여행KIT’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기존고객이 QV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투자여행 KIT’ 선물하기 이벤트를 신청하면 친구에게 첫 투자의 응원 메시지와 KIT 수령 장소 등록 문자(SMS)가 발송된다. 친구는 KIT를 배송 받을 주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투자여행 KIT’는 ‘초보자를 위한 투자여행’이라는 컨셉에 맞게 고급 여



권지갑과 펜 등 여행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와 투자 방법에 대해 재미있게 풀여낸 매뉴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손업지 기자

‘신한 파트너즈와 함께라면~’ 이벤트 진행

신한금융투자 우수법인 서비스 ‘신한 파트너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신한 파트너즈와 함께라면~’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밝혔다.

신한 파트너즈 서비스는 일반법인 및 단체의 자금관리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CEO 가업승계 및 종합자산관리와 임직원 은퇴자산관리에서 각종 금융거래 혜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

해 기존서비스(주식 스마트폰 무료 수수료·법인 임직원 장례물품 지원·인쇄물 제공 등)를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가입채널 신설 및 법인 창립기념일 꽃배달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는 오는 9월 2일 오픈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리뉴얼 기념 이벤트를 통해 신규 법인대상 신한파트너즈 서비스에 가입한 법인 중 선착순 100개사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